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음악학 석사 학위논문

H.Wolf의 <Mörike Lieder> 중  
네 개의 가곡(No.2, No.9, No.12,  
No.16)과

J.Rodrigo의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에 대한 분석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위 윤 수

H.Wolf의 <Mörrike Lieder> 중  
네 개의 가곡(No.2, No.9, No.12,  
No.16)과

J.Rodrigo의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에 대한 분석연구

지도교수 박 미 혜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성악전공  
위 윤 수

위윤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서혜연 (인)

부위원장 전승현 (인)

위 원 박미혜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 중 후고 볼프(Hugo Wolf, 1860-1903)의 작품<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 1888)>에서 ‘Der Knabe und das Immlin(소년과 꿀벌)’,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Verborgenheit(은둔)’, ‘Elfenlied(요정의 노래)’과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 1904-1999)의 작품<Cuatro madrigales Amatorios(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 1947)>을 연구한 것이다.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볼프는 시에 음악을 붙여 가사를 표현하는데 큰 의의를 두었고 바그너의 추종자로 ‘시와 음악의 통합’이라는 그의 창작 원칙을 수렴하여 노래와 가사에 우위를 두지 않았다. 1888년 완성된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은 시인 에두아르트 뫼리케(Eduard Mörike, 1804-1875)의 작품 중 53개의 시에 음악을 붙여 만든 가곡 모음집으로 ‘사랑’, ‘종교’, ‘자연’, ‘초자연’ 그리고 ‘풍자’로 주제가 분류될 수 있다. 본문에서 연구될 제 2, 9, 12, 16번 곡 모두 볼프의 음악적 특징을 잘 담고 있는데, 낭독법을 통한 스토리텔링, 반음계, 불협화음정과 전조를 적극 사용해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소재를 표현하였으며, 무엇보다 피아노 반주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볼프의 세심한 예술성과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의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에 큰 매력을 느껴 다루게 되었다.

로드리고는 스페인 민족주의 작곡가이자 신고전주의 작곡가로, 어렸을 때 다녀온 유학의 영향으로 유럽의 음악적 요소와 본국의 민속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로드리고만의 독자적인 작곡 스타일을 갖게 되었다. 필자는 스페인의 민속 음악적 색채에 전통적인 유럽의 음악적 요소가 융합된 로드리고의 음악에 매력을 느껴 그의 성악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다. 1947년 작곡된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은 로드리고의 대표작으로, ‘사랑’을 주제로 하는 4개의 곡으로 구성된다. 그의 음악적 특징인 협화음정과 불협화음정의 적극적인 쓰임과 스페인 민속음악에 기반을 둔 꾸밈음들이 성악선율과 피아노 반주에 자주 등장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후고 볼프(H. Wolf)의 <뫼리케 가곡집(Mörke Lieder)>과 호아킨 로드리고(J. Rodrigo)의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과 관련된 서적들과 문헌들을 살펴본 후 가사의 해석, 음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두 작곡가와 시의 특징 또한 연구하였다.

주요어 : 후고 볼프, 에두아르트 뫼리케, 호아킨 로드리고, 낭만주의 예술가곡, 스페인 민속음악, 민족주의

학 번 : 2016 - 21875

# 목 차

I. 서론 .....	1
II. 본론 .....	4
1. 후고 볼프(Hugo Wolf)의 <Mörike Lieder>	
중 네 개의 가곡 (No.2, No.9, No.12, No.16) .....	4
1) 19세기 후기 낭만 독일 예술가곡의 흐름 .....	4
2) 후고 볼프(Hugo Wolf)의 생애 .....	5
3) 후고 볼프(Hugo Wolf)의 음악적 특징 .....	6
4) 에두아르트 뫼리케(Eduard Mörike)의 생애 .....	7
5)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의 작품 특징 .....	8
6)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	
중 No.2, No.9, No.12, No.16 분석 .....	10
6-1) Der Knabe und das Immlin(소년과 꿀벌) .....	11
6-2)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	24
6-3) Verborgenheit(은둔) .....	32
6-4) Elfenlied(요정의 노래) .....	38
2.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의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 .....	33
1) 음악적 배경 .....	33
1-1) 20세기 스페인 음악의 흐름 .....	33
1-2) 스페인 민속음악(Folklore) .....	33
2)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의 생애 .....	35

3)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의 음악적 특징 .....	36
4)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 의 작품 특징 .....	37
5)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 분석 .....	39
5-1) 제 1곡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	39
5-2) 제 2곡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	
5-3) 제 3곡 ¿De donde veni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	43
5-4) 제 4곡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플라 나무 옆에서) .....	52
Ⅲ. 결론 .....	58
참고문헌 .....	61
Abstract .....	63

## 표 목 차

<표1> 후고 볼프(Hugo Wolf)의 대표적 가곡집 .....	7
<표2>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 주제별 분류 .....	8
<표3>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의 2, 9, 12, 16번 곡 구성 .....	10
<표4> Der Knabe und das Immlin(소년과 꿀벌) 구성 .....	12
<표5> Der Knabe und das Immlin(소년과 꿀벌) 독일어 지시어 뜻 .....	16
<표6>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구성 .....	18
<표7>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독일어 지시어 뜻 .....	22
<표8> Verborgenheit(은둔) 구성 .....	23
<표9> Verborgenheit(은둔) 독일어 지시어 뜻 .....	26
<표10> Elfenlied(요정의 노래) 구성 .....	28
<표11> Elfenlied(요정의 노래) 독일어 지시어 뜻 .....	32
<표12> 스페인 민속음악의 리듬 ㉠㉢㉣ .....	34
<표13>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 (Cuatro madrigales Amatorios)> .....	38
<표14>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구성 .....	39
<표15>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구성 .....	44
<표16> ¿De donde veni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구성 .....	48
<표17>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구성 .....	53



## 악 보 목 차

<악보1>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 1-4마디 .....	13
<악보2>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 9-11마디 .....	13
<악보3>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 18-20마디 .....	14
<악보4>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 28-30마디 .....	14
<악보5>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 36-37마디 .....	15
<악보6>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 44-47마디 .....	15
<악보7>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 51-54마디 .....	16
<악보8>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1-4마디(전주) ·	18
<악보9>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50-55마디(후주) .....	18
<악보10>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4-8마디 .....	19
<악보11>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18-21마디 .....	20
<악보12>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29-37마디 .....	20
<악보13>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39-40마디 .....	21
<악보14>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44-47마디 .....	21
<악보15> Verborgenheit(은둔) 1-17마디 .....	24
<악보16> Verborgenheit(은둔) 20-27마디 .....	25
<악보17> Verborgenheit(은둔) 28-30마디 .....	26

<악보18> Elfenlied(요정의 노래) 1-4마디 .....	29
<악보19> Elfenlied(요정의 노래) 5-9마디 .....	29
<악보20> Elfenlied(요정의 노래) 10-13마디 .....	30
<악보21> Elfenlied(요정의 노래) 22-29마디 .....	30
<악보22> Elfenlied(요정의 노래) 38-45마디 .....	31
<악보23> Elfenlied(요정의 노래) 50-61마디 .....	32
<악보24> 플라멩코에서 사용된 복합박자(amalgama) .....	34
<악보25> 사라사테(Pablo de Sarasate)의 카르멘 환상곡(Carmen Fantasy op. 25) .....	34
<악보26> 로드리고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의 제1곡 9-10마디.....	35
<악보27>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1마디 .....	40
<악보28> f Aeolian(자연단음계) 선법 .....	40
<악보29>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2-4마디 ...	40
<악보30>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5-8마디 ...	41
<악보31>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9-12마디 ·	42
<악보32>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13-17마디	42
<악보33>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22-24마디	43
<악보34>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1마디 .....	44
<악보35>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2-5마디 ·	45
<악보36>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7-9마디 ·	46
<악보37>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16-21마디 .....	46
<악보38>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23-25마디 .....	47
<악보39>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27-30마디 .....	47

<악보40> ¿De donde venis, amore? (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1-4마디 .....	49
<악보41> ¿De donde venis, amore? (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5-8마디 .....	49
<악보42> ¿De donde venis, amore? (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17-24마디 .....	50
<악보43> ¿De donde venis, amore? (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29-36마디 .....	51
<악보44> ¿De donde venis, amore? (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39-42마디 .....	51
<악보45> ¿De donde venis, amore? (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43-48마디 .....	52
<악보46>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1-4마디 .....	54
<악보47>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15-18마디 .....	54
<악보48>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25-29마디 .....	55
<악보49>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40-44마디 .....	55
<악보50>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85마디 .....	56
<악보51>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105-109마디 .....	56
<악보52>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44-47마디 .....	57

<악보53>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75-78마디 ..... 57

## I. 서론

18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유럽의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예술과 문화 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슈베르트(F.P.Schubert, 1797-1828)를 기점으로 19세기 유럽 클래식 음악에는 시에 노래를 붙여 만든 예술가곡(Kunstlied)이 탄생한다. 그들은 다양한 음악적 장치를 통해 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를 표제음악이라고 한다. 후고 볼프(Hugo Wolf, 1860-1903)는 음악과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이 시기 독일의 예술가곡을 절정에 이르게 했다. 또,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 1904-1999)는 절정에 이른 유럽의 예술가곡을 스페인의 것에 융합시키며 독창적인 자신만의 작법 스타일을 구축시켰다. 비록 두 작곡가가 국적도 시대도 다르지만 표제음악 작곡가라는 공통점이 있어 필자는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관심이 있던 두 작곡가의 작품을 선택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 중 후고 볼프(Hugo Wolf, 1860-1903)의 작품<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 1888)>에서 ‘Der Knabe und das Immlin(소년과 꿀벌)’,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Verborgenheit(은둔)’, ‘Elfenlied(요정의 노래)’과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 1904-1999)의 작품<Cuatro madrigales Amatorios(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 1947)>을 연구한 것이다.

볼프는 오스트리아 작곡가로 19세기 후기 낭만 독일 예술가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당시 개인의 인권과 자신의 주관성을 표출하는 것에 치중이 된 사조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사조는 볼프의 작품에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큰 관심을 보였던 볼프는 예술가곡을 작곡할 때 음악보다 시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바그너의 추종자로서 ‘시와 음악의 통합’이라는 바그너의 창작 원칙을 수렴하여 자신의 예술가곡 작곡에도 적극 활용하였다. 피아노 반주 역시 성악부와 대등한 관계에 두고 작곡하였는데 성악 선율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시의 내용을 피아노 반주에 나눠 풍부하고 다채롭게 전달하였다. 1888년 완성된 그의 작품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은 시인 에두아르트 뫼리케

(Eduard Mörike, 1804-1875)의 시에 영감을 받아 그의 시들 가운데 53개의 작품에 곡을 붙인 것으로, 볼프의 본격적인 가곡집 창작 활동에 있어 첫 번째 작품으로 큰 의미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의 주제를 크게 ‘사랑’, ‘종교’, ‘자연’, ‘초자연’ 그리고 ‘풍자’ 총 5가지로 새롭게 분류했다. 필자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의 53개 가곡 중 제 2, 9, 12, 16번 총 4곡을 골라 연구하였는데, 제 2, 9번 가곡은 ‘사랑’을 주제로, 제 12번 가곡은 ‘종교’적 주제로, 그리고 제 16번 가곡은 ‘초자연’적 주제로 묶인다. 제 2번 Der Knabe und das Immlin(소년과 꿀벌)과 제 16번 Elfenlied(요정의 노래)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소재를 등장시켜 필자의 궁금증과 동심을 일으켰다. 제 9번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과 제 12번 Verborgenheit(은둔)에서는 서정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볼프의 반음계 음정과 불협화음정을 이용한 작풍이 더해져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느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들에 흥미를 느껴 제 2, 9, 12, 16번 가곡들을 선택하고 연구했다.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는 스페인 민족주의 작곡가이자 20세기 전반에 걸친 신고전주의 작곡가이다. 그는 젊은 시절 유럽 유학의 영향으로 유럽의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의 작법을 배워왔으며 동시에 스페인 작곡가로서 자국의 민속 음악 요소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작곡하였다. 본문에서 다룰 로드리고의 연가곡<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은 작자미상의 사랑에 관한 시에 붙인 4개의 곡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기 다른 사랑을 호소한다. 제 1곡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은 금지된 사랑을 하고 죄책감과 비참함을 느끼는 슬픈 분위기의 사랑 노래, 제 2곡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사랑의 고통을 표현한 노래, 제 3곡 ¿De donde veni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밝은 느낌의 노래 그리고 제 4곡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플라 나무 옆에서)는 화자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것을 포플라 나무에 다녀왔다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곡이다. 이처럼 한 연가곡 안에서 같은 소재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나아가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은 당대 활동했던 스페인 성악가 4명에게 각각 헌정되었는데, 로드리고는 가수의 목소리를 고려해 그들에 어울리는 선율을 만들었다. 스페인 민속 춤곡 리듬과 기타 주법을 연상시키는 음형을 피아노 반주와 성악 선율에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이는 필자가 흥미를 가지게 된 로드리고의 작곡 기법이다. 이 작품은 원래 피아노와 성악을 위한 곡으로 작곡되었으나 1948년에 오케스트라와 성악을 위한 곡으로 편곡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볼프의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 1888)> 중 ‘Der Knabe und das Immelein(소년과 꿀벌)’,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Verborgeneheit(은둔)’, ‘Elfenlied(요정의 노래)’과 로드리고의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연주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 작품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작곡가들과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들에 대한 관심 또한 고취시키고자 한다.

## II. 본론

### 1. 후고 볼프(Hugo Wolf)의 <Mörrike Lieder> 중 네 개의 가곡 (No.2, No.9, No.12, No.16)

#### 1) 19세기 낭만 독일 예술가곡의 흐름

“낭만주의”(Romanticism)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경제와 정치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계급 사회가 무너지면서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삶에 여유가 생기긴 시민들은 문화와 예술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음악가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혹은 음악 애호가들을 위해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문학에 강한 영향을 받은 낭만주의 음악의 중요한 본질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욕구, 개성의 존중, 자유에의 태도 등이 있다. 고전주의 음악에서 존중하던 보편적인 형식과 이상화 된 내용을 연장하여 새로운 것을 좇았다. 통제적인 것을 벗어나 개성적인 색조를 강화하여 자유로운 태도로 자기의 음악을 표현하려는 경향과 시, 소설 등 음악 외적인 요소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에는 이러한 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과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sup>1)</sup>

독일의 19세기 낭만시대 예술가곡은 시와 선율 그리고 피아노가 융합되어 시를 음악으로 표현한 것으로 ‘리트(Lied)’로 독립된다. 낭만주의 예술가곡은 슈베르트(F. Schubert)의 예술가곡으로 정점을 이루었으며<sup>2)</sup> 슈만(R. Schumann), 브람스(J. Brahms), 멘델스존(F. Mendelssohn), 말러(G. Mahler), 슈트라우스(R. Strauss) 그리고 볼프가 뒤를 이어 음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8세기 후반부터 괴테(Goethe)와 하이네(Heine), 뮐러(Müller) 그리고 쉴러(Schiller) 등 작가들에 의한 시 문학의 발전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로 피아노가 개량되면서 예술가곡은 더 발

1) 강만희, 《간추린 19세기 낭만음악사》, 예광, 2005, p.1-2.

2) 홍세원, 《낭만과 음악》,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p.52.



달할 수 있었다. 피아노에 페달이 달리게 되면서 풍부한 성량을 가지게 되었고 독주, 반주 악기로 자리매김 됐으며 작곡가들이 많은 피아노 작품을 써냈다.

## 2) 후고 볼프(Hugo Wolf)의 생애

후고 볼프(Hugo Wolf)는 1860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 유고슬로비아(Yugoslavia)의 스타이리아(Styria)에서 태어나 비엔나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과 문학에 큰 관심과 재능을 보였지만 음악 외의 과목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너무 독창적인 성격 때문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여러 번의 전학을 하는 등 방황했다.<sup>3)</sup> 1875년에는 비엔나 음악원에 진학하였지만 결국 끝마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며 풀었던 볼프는 17세의 나이에 성병에 걸려 매독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3번의 연애 모두 좋은 결과 없이 끝났지만 이때 느꼈던 감정이 창작 활동에 영감을 주어 1881년에 아이헨도르프의 시로 6개의 종교적인 노래를 작곡하였다.

볼프는 비엔나에서 바그너(R. Wagner)가 직접 지휘하는 오페라 <탄호이저(Tanhäuser)>와 <로엔그린(Lohengrin)>을 듣고 크게 감탄하고 매료된다. 이 계기로 그는 바그너의 음악과 인격의 추종자가 되었고 ‘시와 음악이 동등해야 한다’는 바그너의 창작 원칙을 받아들여 작곡하기 시작했다. 1884부터 ‘비엔나 살롱지(Wiener Salonblatt)’의 음악평론가로 임명받아 3년간 368편의 음악평론을 발표했는데, 날카로운 비평과 독설로 브람스를 비판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동시에 바그너에게는 경외심을 담아 우호적인 평들을 남겼는데, 볼프는 바그너의 오페라에 대해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가 남긴 바그너에 대한 글들은 후대에 바그너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자료로 쓰였다.<sup>4)</sup>

1903년 2월 22일 빈의 국립묘지에 베토벤과 슈베르트와 함께 안장되었다.<sup>5)</sup>

3) 강만희 《간추린 19세기 낭만음악사》, 예광, 2005, p.234.

4) 강만희 《간추린 19세기 낭만음악사》, 예광, 2005, p.236.

5) 강만희 《간추린 19세기 낭만음악사》, 예광, 2005, p.237.

### 3) 후고 볼프(Hugo Wolf)의 음악적 특징

볼프는 음악보다 시를 더 중요시 하였으며, 바그너의 팬으로서 ‘시와 음악의 통합’이라는 그의 창작 원칙을 수렴하여 자신의 예술가곡 작곡에도 적극 활용하였다. 바그너의 오페라에서 성악이 사용된 것 같이 볼프는 성악을 그저 하나의 악기로 간주하였다. 통절형식을 주로 사용하여 시가 반복되는 부분에서 변화를 주었다. 시의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 낭독법(Declamation)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레치타티보(Recitativo)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볼프의 음악은 조성음악으로 그는 시의 내용이 화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하였고, 불협화음과 반음계적 화성 또한 시의 내용에 맞추어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피아노 반주는 성악 선율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가사 내용을 묘사하기 위해 쓰였으며, 시와 마찬가지로 피아노 반주를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두었다. 볼프는 표제음악에서 곡 중의 주요인물을 상징하는 동기를 취하는 악구를 즐겨 사용했는데, 이것은 바그너가 사용했던 ‘유도동기(Leitmotiv)’와 같은 역할을 한다.

<표1>과 같이 1888년부터 1897년까지가 볼프의 인생에서 본인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가지고 가장 활발한 작곡활동을 한 시기이다.

<표1> 후고 볼프(Hugo Wolf)의 대표적 가곡집

작곡년도	가곡집	시인	곡 수
1888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 (Gedichte von Mörike)	Eduard Mörike	53
1880 - 1888	<아이헨도르프 가곡집> (Gedichte von Eichendorff)	Joseph von Eichendorff	20
1888 - 1889	<괴테 가곡집> (Gedichte von Goethe)	Johann Wolfgang von Goethe	51
1889 - 1890	<스페인 가곡집> (Spanisches Liederbuch)	Emanuel Geibel, Paul Heyse	44
1890 - 1891	<이탈리아 가곡집 I> (Italienisches Liederbuch I)	Paul Heyse	22
1896	<이탈리아 가곡집 II> (Italienisches Liederbuch II)	Paul Heyse	24
1897	<미켈란젤로 시에 의한 3개의 노래> (Michelangelo Lieder)	Michelangelo di Buonarroti	3

#### 4) 에두아르트 뫼리케(Eduard Mörike)의 생애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중간에 위치한 독일의 시인 에두아르트 뫼리케(Eduard Mörike, 1804-1875)는 1804년 9월 8일 독일의 루드비히스부르크(Ludwigsburg)에서 태어나 신학교를 거쳐 튀빙겐(Tübingen) 수도원으로 진학하여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행을 다니며 문학 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 그가 겪었던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서정시를 썼다. 1829년에 방황을 멈추고 부목사직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의 시들이 잡지에 게재되어 제법 유명해져 있었다.

2번의 결혼생활 동안 그의 문학은 절정기에 올랐고 그의 대표작인 소설 <화가 놀텐(Maler Nolten, 1832)>과 많은 서정시들이 창작되었다. 그의 서정시들로 인해 괴테 이후 독일의 중요한 서정시 시인으로 인정받는다. 뫼리케는 서정시에 뛰어났으며, 목가적인 내용을 잘 표현하였다. 고전주

의 형식에 가깝지만 자연의 신비함과 종교적인 것 그리고 민요적 정서를 담은 낭만주의와도 상통한다. 또 적나라하고 세심한 묘사를 하는 사실주의의 면모도 볼 수 있으며, 작품의 소재로 요정, 귀신 등의 초자연적인 대상도 자주 다루고 있다.<sup>6)</sup>

### 5)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 1888)>의 작품 특징

볼프는 뫼리케의 시에 영감을 받아 그의 시들 가운데 53개의 작품에 곡을 붙였다. 8개월간 비엔나 외곽의 조용한 집에서 쓰였는데, 대략 하루에 1-2곡 정도를 작곡한 셈이다. 볼프의 첫 번째 중요한 가곡집이며,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곡들을 수록하고 있다. 시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취급하는데 자연과 초자연적인 소재, 인물, 유머러스한 가사, 서정적이면서 에로틱한 사랑의 시들을 담고 있다.<sup>7)</sup> 가사에 따른 음악적 표현이 다채롭고 독특하며, 표현내용이 광범위하고 대담하다.<sup>8)</sup> 필자는 다음 <표 2>와 같이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을 내용에 따라 사랑, 종교, 자연, 초자연, 풍자로 나누었다.

<표2>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 주제별 분류

주제	작품번호 (Op.)	곡명
사랑	2	소년과 꿀벌 (Der Knabe und das Immlein)
	3	새벽의 즐거운 한 때 (Ein Stündlein wohl vor Tag)
	4	사냥꾼의 노래 (Jägerlied)
	5	북잡이 (Der Tambour)
	7	버림받은 소녀 (Das verlassene Mägdlein)
	8	만남 (Begegnung)
	9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랑 (Nimmer satte Liebe)
	11	에올루스의 하프에게 (An eine Äeolsharfe)
	14	아그네스 (Agnes)
	17	정원사 (Der Gärtner)

6) 피종호, 《아름다운 독일시와 가곡》, 자작나무, 1999

7) Carol Kimball. 채은희 역,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하권, 형설, 2004, p.144.

8) Eric Sam, 《The Songs of Hugo Wolf》, 1993, p.490.

	18	4월의 호랑나비 (Zitronenfalter im April)
	33	페레그리나 I (Peregrina I)
	34	페레그리나 II (Peregrina II)
	35	질문과대답 (Frage und Antwort)
	36	안녕 (Lebe wohl)
	37	향수 (Heimweh)
	40	사냥꾼 (Der Jäger)
	41	늙은 여자의 충고 (Rat einer Alten)
	42	처녀의 첫 사랑의 노래 (Erstes Liebeslied eines Mädchens)
	43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 (Lied eines Verliebten)
	50	명령 (Auftrag)
	종교	1
10		도보여행 (Fussereise)
12		은둔 (Verborgtheit)
22		탄식 (Seufzer)
23		옛 그림에 부쳐 (Auf ein altes Bild)
24		이른 아침에 (In der Frühe)
25		잠자는 아기 예수 (Schlafendes Jesuskind)
26		수난주간 (Karwoche)
27		새해를 맞아 (Zum neuen Jahr)
28		기도 (Gebet)
29		잠에 부쳐 (An den Schlaf)
30		새로운 사랑 (Neue Liebe)
31		위안은 어디에 (Wo find'ich Trost)
32		사랑하는 이에게 (An die Geliebte)
39	생각해 보라 오 영혼이여 (Denk'es, O Seele!)	
자연	6	봄이 왔다 (Er ist's)
	13	봄날에 (Im Frühling)
	15	여행지에서 (Auf einer Wanderung)
	19	한 밤 중에 (Un Mitternacht)
	20	크리스트 블루메에게 I (Auf eine Christblume I)
	21	크리스트 블루메에게 II (Auf eine Christblume II)
	38	바람의 노래 (Lied vom Winde)
초자연 (신화, 설화 등)	16	요정의 노래 (Elfenlied)
	44	불의 기사 (Der Feuerreiter)
	45	물의 요정 빈제푸스 (Nixe Binsefuss)
	46	바일라의 노래 (Gesang Weylas)
	47	뭉델호수의 요괴 (Die Geister am Mummelsee)
	48	황새의 심부름 (Storchenbotschaft)

풍자	49(8)	훈계 (Zur Warnung)
	51(10)	어느 혼례에서 (Bei einer Trauung)
	52(21)	자기고백 (Selbstgeständnis)
	53(15)	작별 (Abschied)

6) <Mörrike Lieder> 중 네 개의 가곡(No.2, No.9, No.12, No.16)에 대한 분석

<표3> <뫼리케 가곡집(Mörrike Lieder)>의 2, 9, 12, 16번 곡 구성

No.	제목	빠르기	박자	형식	구성
2	Der Knabe und das Immlein (소년과 꿀벌)	Mässig, Zart 보통빠르기, 부드럽게	4/4	A-A' -B-B'-B"	g-G
9	Nimmersatte Liebe (만족 없는 사랑)	Sehr mässig 아주 보통의 빠르기	4/8	A-B-A	Ab-Eb -Ab
12	Verborgtheit (은둔)	Mässig und sehr innig 보통빠르기,사 랑스런 마음으로	4/4	A-B(ab)- A	Eb-Gb -eb-Eb
16	Elfenlied (요정의 노래)	Mässig 보통빠르기	2/4	통절형식 A-B-C(ab )-D-E	Eb-F-G- e-F

6-1) No. 2 Der Knabe und das Immelein(소년과 꿀벌)

<p>Im Weinberg auf der Höhe Ein Häuslein steht so windebang, Hat weder Tür noch Fenster, Die Weile wird ihm lang.</p> <p>Und ist der Tag so schwüle, Sind all verstummt die Vögelein, Summt an der Sonnenblume Ein Immelein ganz allein.</p> <p>Mein Lieb hat einen Garten, Da steht ein hübsches Immenhaus: Kommst du daher geflogen? Schickt sie dich nach mir aus?</p> <p>„O nein, du feiner Knabe, Es hieß mich niemand Boten gehn; Dieses Kind weiß nichts von Lieben, Hat dich noch kaum gesehn.</p> <p>Was wüßten auch die Mädchen, Wenn sie kaum aus der Schule sind! Dein herzallerliebstes Schätzchen Ist noch ein Mutterkind.</p>	<p>언덕 위 포도밭에 작은집 하나가 바람에 불안하게 서있었다. 대문도 창문도 없이, 긴 세월동안.</p> <p>날씨는 음울하고 새들이 모두 숨을 죽이면 해바라기 옆에 웅웅거리고 있는 외로운 벌 한 마리.</p> <p>(소년) “내 님은 예쁜 벌집이 있는 정원에 삽니다: 혹시 당신은 거기서 날아왔나요? 내 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냈나 요?”</p> <p>(꿀벌) “오 아니에요, 멋진 소년! 아무도 나를 심부름 보내지 않았 어요; 그 아이는 아직 사랑을 몰 라요. 당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다니까요.</p> <p>학교를 갓 나온 소녀가 무얼 알겠어요! 당신이 애타게 사랑하는 애인은 아직 어린아이예요,</p>
--	--

<p>Ich bring ihm Wachs und Honig; Ade! - ich hab ein ganzes Pfund; Wie wird das Schätzchen lachen, Ihm wässert schon der Mund.“</p> <p>Ach, wolltest du ihr sagen, Ich wüßte, was viel süßer ist: Nichts Lieblichers auf Erden Als wenn man herzt und küßt!</p>	<p>나는 꿀과 밀을 가져다주러 갈 거예요; 안녕! - 한 통도 더 뺐으니; 꼬마 애인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입에서 군침을 흘리며.”</p> <p>(소년) “아, 내 님에게 말해주세요. 더 달콤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 세상에 포옹과 입맞춤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고!”</p>
---	--

‘Der Knabe und das Immelein(소년과 꿀벌)’은 <뫼리케 가곡집(Mörrike Lieder)>의 2번째 수록된 곡으로, 순수한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해설과 대화로 담고 있다. 1마디부터 16마디까지 해설자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19마디부터 끝날 때까지는 소년과 꿀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A-A’-B-B’-B”의 구조로 A는 해설, B는 대화로 나뉜다. 피아노 반주에 주요인물을 상징하는 동기를 취한 악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그너의 ‘유도동기(Leitmotiv)’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이 표제음악임을 알 수 있다. 시의 분위기와 등장인물을 세심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지시어들이 악보에 많이 나타나있으며, 이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표4> Der Knabe und das Immelein(소년과 꿀벌) 구성

형식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A	1-8	g minor	Mässig, Zart	4/4
A’	9-19			
B	20-35	G Major	보통빠르기, 부드럽게	
B’	36-51			
B”	52-66			



A와 A'는 해설자의 대사로, 독자의 궁금증을 일으키게끔 1-19마디의 조성을 g minor로 설정했다. 연주자는 해설자의 목소리로 부드럽고 여리게 설명을 시작하듯 노래해야한다.

<악보1>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 1-4마디

**A** **Mässig, zart. (Moderately, tenderly):** 보통 빠르기, 부드럽게  
*leise (softly)*

해설자: Im Wein-berg auf der Hö - - he ein Häus-lein steht so

g minor *pp*

A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A'로 큰 어조나 감정이 없이 보통 빠르기로 담담하게 날씨와 배경 등 이야기가 일어나는 주변 환경을 해설한다.

<악보2>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 9-11마디

*a tempo* **A'**

Und ist der Tag so schwü - le, sind all' ver-stummt die

*a tempo*

*pp*

B부분이 시작되는 20마디부터 A부분과 같은 으뜸음으로 통일성은 주되 소년과 꿀벌의 사랑스러움과 따뜻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G Major로 전조됐다. 반주부의 트릴(Trill)은 꿀벌이 날아오는 것을 상징하며, 이는 표제적인 형태를 띤다. B구간을 연주할 때 해설자의 어조 없는 목소리와 차이를 두고 소년의 순수함과 밝은 느낌을 살려 연주해야한다.

<악보3> Der Knabe und das Immelein(소년과 꿀벌) 18-20마디

18 19 (소년의 말)  
 꿀벌이 날아오는 소리  
 „Mein Lieb hat ei-nen  
 B G Major  
 tr  
 dim.  
 p

28마디부터 시작되는 꿀벌의 대사를 소년의 대사와 구분지어주기 위해 ‘etwas bewegter(Andantino)’ 빠르기와 ‘einfach(천진난만한)’으로 캐릭터를 나타낸다. 31마디의 반주에서는 약간의 변형이 된 트릴 모양을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같은 역할로 꿀벌을 상징한다.

<악보4> Der Knabe und das Immelein(소년과 꿀벌) 28-30마디

꿀벌  
 etwas bewegter (poco più mosso) (=Andantino)  
 einfach (simply) : 천진난만한  
 28 29 30  
 „O nein, du fel-ner... Kna-be, es hies mich nie-mand  
 tr  
 sehr zart (very tenderly)

소년과 꿀벌의 첫 번째 대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36마디부터 B'부분이 시작되면서 소년이 두 번째 대화를 이어나간다. 꿀벌의 대사가 마치는 것을 구분 짓기 위해 반중지와 'poco rit.'를 배치하여 마무리 지었다. 'scherzando(장난스럽게)'가 있는 것을 보아 소년은 B부분에서 보다 꿀벌에게 장난스럽게 대화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랑하는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며 약간은 상기되어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악보5> Der Knabe und das Immelein(소년과 꿀벌) 35-38마디

44마디부터 다시 B'부분의 꿀벌의 대사가 시작된다. 소녀에게 좋아하는 꿀을 전해줄 마음에 들떠있는 마음을 지시어 'munter(생기를 가지고)'가 알려주고 있다. 꿀벌이 등장할 때마다 꿀벌의 날개소리를 트릴과 셋잇단 꾸밈음으로 상징적으로 피아노 반주가 나타낸다.

<악보6> Der Knabe und das Immelein(소년과 꿀벌) 44-47마디

52마디부터 마지막 부분인 B”가 등장하며, 소년의 대사를 마무리로 노래가 끝이 난다. 소녀에게 꿀통을 들고 떠나가는 꿀벌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메시지가 담겨있으며, 지시어 ‘innig(사랑스러운 마음으로)’와 같이 소년의 사랑이 묻어있다. 총 3번의 B가 조금씩 변형되어 B-B’-B”로 꿀벌과 소년의 대화가 진행되는 구조의 곡이다. 해설자, 소년 그리고 꿀벌의 대사에 구분을 두기 위해 여러 지시어가 사용됐고 연주자는 이를 반드시 유의해야한다.

<악보7> Der Knabe und das Immelein(소년과 꿀벌) 51-54마디

<표 5> Der Knabe und das Immelein(소년과 꿀벌) 독일어 지시어 뜻

No.	제목	마디	지시어	뜻
2	Der Knabe und das Immelein 소년과 꿀벌	28	etwas bewegter	(=Andantino) Andante 보다는 조금 빠르게
		30	einfach	천진난만한
		44	munter	생기를 가지고
		51	innig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60	hingebend	헌신적인
		63	leidenschaftlich	격렬한
		65	nachlassend	조용히 누그러지며

6-2) No.9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p>So ist die Lieb! So ist die Lieb!          Mit Küssen nicht zu stillen:          Wer ist der Tor und will ein Sieb          Mit eitel Wasser füllen?          Und schöpfst du an die tausend Jahr,          Und küssest ewig, ewig gar,          Du tust ihr nie zu Willen.</p>	<p>사랑은 이런 것!          입맞춤도 진정시킬 수 없다:          어느 바보가 빈 독에          물을 채우려 하겠는가?          천년을, 영원히 입 맞추어도          당신은 결코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다.</p>
<p>Die Lieb, die Lieb hat alle Stund          Neu wunderlich Gelüsten;          Wir bissen uns die Lippen wund,          Da wir uns heute küssten.          Das Mädchen hielt in guter Ruh,          Wie's Lämmlein unterm Messer;          Ihr Auge bat:          „Nur immer zu!          Je weher, desto besser!“</p>	<p>사랑은 언제나 놀랍게도          새로운 욕구를 가진다;          우리는 입술을 깨물고          상처를 냈다.          소녀는 좋아했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녀의 눈은 원했다:          “더 입맞추라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좋다고!”</p>
<p>So ist die Lieb!          und war auch so,          Wie lang es Liebe gibt,          Und anders war Herr Salomo,          Der Weise, nicht verliebt.</p>	<p>사랑은 이런 것!          사랑이 있던          옛날에도 그랬다.          지혜의 임금 솔로몬도          사랑엔 다를 바가 없었다.</p>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은 <뫼리케 가곡집(Mörrike Lieder)>의 9번째 수록된 곡으로, 욕망스러운 사랑을 선정적이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곡이다. 당대 이러한 선정적인 뫼리케의 시는 대중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가사는 규칙적인 운율을 띄고 있어 통일감을 느낄 수 있다. 당김음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비박절에 강세를 주는 등 각 부분의 변화를 명확하게 해주고 익살스럽고 명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표6>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구성

형식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A	1-19	Ab-f-c	Sehr mässig	4/8
B	a	Eb Major	아주	
	b		보통의	
A'	39-54	Ab Major	빠르기	

곡의 전주와 후주에 닮은 음형을 사용해 통일성을 이룬다. 당김음①에 페달 포인트(Pedal point)를 사용하여 비박절에 강세를 주었다. 또, 페달 포인트를 통해 음악이 정체되는 느낌을 주다가 베이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긴장감을 형성한다.

<악보8>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1-4마디(전주)

Sehr mässig : 아주 보통 빠르기

당김음①

전주

So

Ab Major; Pedal point

<악보9>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50-55마디(후주)

liebt. (Julia von Bose)

후주

Pedal point

4-5마디 성악과 피아노 반주 선율이 unison을 이루고, 가사‘So ist die Lieb!’는 문장을 도치시켜 가사를 강조했다. 이때 연주자는 ‘So’에서부터 감정을 실어 ‘ist’에 강세를 두고 연주해야하며, 가사의 어미에 달린 ‘-st’, ‘-b’를 정확하게 발음해야한다.

A부분 안에서 2번의 전조가 일어나는데, Ab-f-c로 전조됨에 따라 ‘사랑에 대한 불안함’이 드러난다.

<악보10>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4-8마디

1도병행(unison)

So ist die Lieb! So ist die Lieb! Mit Küssen nicht zu stil-len: wer

Ab Major f minor c minor

B부분의 악구a(B-a)에서 딸림조인 Eb Major로 전조되는데, 딸림조는 긴장을 최고조로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에서 주로 사용된다. B-b에서 A b Major로 전조되는데, 이는 A'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이다.

<악보11> 21마디에서 당김음②에는 박절에 쉼표가 있고 비박절의 음가가 더 길기 때문에 강세가 비박절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2>의 29-30마디에 당김음③에는 쉼표로 인해 강세가 뒤로 밀려 나타나게 했다.

B부분의 악구b(B-b)는 이 곡의 가장 긴장도가 극대화되는 클라이맥스이다. 음을 순차적으로 쌓아가며 곡의 긴장감을 유지했다가 가장 높은 음정‘Ab’에서 터뜨린다. 이때 연주자는 호흡을 긴장감 있게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소리를 크레센도 시켜야한다. 또한 가사에 따라 섬세하고 다양한 지시어가 작가는 마디 단위마다 제시되는데 연주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 연주해야한다. 키스를 하는 수줍어하는 모습과 키스 이후 더욱 흥분된 소녀의 모습이 지시어로 자세히 묘사된다.

<악보11>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18-21마디

18 Wil - len Die Lieb, die Lieb hat

19 B - a 약간 활기있게 *etwas belebter*  
(*poco più mosso*)

20 *ausdrucksvoll*  
(*expressively*) : 감정이 풍부하게

21 *pp* 당김음②

Eb Major;

<악보12>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29-37마디

29 *zart* 부드럽게 *immer erregter* 흥분된

30 küß - ten. Das Mäd - chen hielt in gu - ter Ruh, wie's Lämm - lein un - term

31 동음연타 > 긴장감 쌓기

32 *pp* 당김음③

33 *cresc.* A b : A로 돌아가려는 준비

34 Climax *ritard.*

35 *dim.*

Mes - ser; ihr Au - ge bat: nur im - mer zu, je we - - her desto

39마디 페르마타에 지시어 'lang'가 있어 새롭게 40마디의 A'부분을 연주한다. A와 달리 A'의 도입부에는 'Wie zu Anfang(아이처럼)' 불러달라는 지시어가 있는데, 이는 44마디의 가사 'und anders war Herr



Salomo, der Weise, nicht verliebt. 지혜의 임금 솔로몬도 사랑엔 다를 바가 없었다.’를 익살스럽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 가사는 솔로몬 왕의 ‘오직 지혜만이 사랑을 만든다.’이란 말에서 가져온 것이다.

<악보13>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39-40마디

44-47마디에 성악과 피아노 반주 간의 1도 병행을 통해 선율과 가사를 강조한 작곡가의 의도를 볼 수 있다. 이때 연주자는 피아노와 병행1도를 이룰 수 있도록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해야한다.

<악보14>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44-47마디

<표7>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독일어 지시어 뜻

No.	제목	지시어	뜻
9	Nimmersatte Liebe 만족 없는 사랑	etwas zurückhaltend	약간 수줍어하며
		etwas belebter	약간 활기있게
		ausdrucksvoll	감정이 풍부하게
		zart	부드럽게
		immer erregter	계속 흥분되어
		Wie zu Anfang	아이처럼
		zögernd	우물쭈물 주저하는
		mit Humor	익살스럽게

6-3) No.12 Verborgenheit(은둔)

Lass, o Welt, o lass mich sein! Locket nicht mit Liebesgaben, Lasst dies Herz alleine haben Seine Wonne, seine Pein!	오, 세상이여, 나를 내버려두세요! 사랑의 재물로 유혹하지 마시고, 이 마음이 홀로 기쁨과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
Was ich traure, weiss ich nicht, Es ist unbekanntes Wehe; Immerdar durch Tränen sehe Ich der Sonne liebes Licht.	내가 왜 슬퍼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것은 알 수 없는 슬픔입니다; 언제나 눈물을 통해 태양이 사랑하는 빛을 봅니다.
Oft bin ich mir kaum bewusst, Und die helle Freude zücket Durch die Schwere, so mich drücket Wonniglich in meiner Brust.	종종 나는 생각에 잠기곤 하는데, 밝은 기쁨이 반짝이며 어둠을 뚫고 내 마음에 황홀함을 가져다줍니다.

Verborgenheit(은둔)은 <뫼리케 가곡집(Mörrike Lieder)>의 12번째 수록된 곡으로, 서정적인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시인은 세상의 것을 마다하고 본인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 자신이 처한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 기쁨을 찾고자 함이며, 성숙한 인간의 아름다운 면모가 나타난다. 가사는 12행으로 구성되며 1, 4연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표8> Verborgenheit(은둔) 구성

형식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A		1-10	E♭ Major	Mässig und sehr innig 보통빠르기, 사랑스런 마음으로	4/4
B	a	11-19	c minor G♭ Major		
	b	20-27	B♭ - c - e♭		
A		28-36	E♭ Major		

<악보15>의 A구간의 1마디 전주부터 피아노 반주 베이스가 Pedal point로 인해 음악이 정체되는 느낌이 들다가 B부분의 악구a부터 베이스가 움직이면서 긴장감이 시작된다. 이때 나란한조인 c minor와 원조의 같은 으뜸음조의 딸림조 G♭로 전조되어 긴장감 고조를 돕는다.

Pedal point가 지속되는 부분에서는 내내 서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며 연주자는 2마디씩 묶어 프레이즈를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서정적인 곡일 수록 발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legato에 더 신경을 써야만 하는데, 이때 모음이 길게 잘 연결되어야한다.

‘Lass, o Welt’에서 반음계적 하행 선율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치이므로 성악가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담아 연주해야한다. 또한 B부분 악구a의 ‘Was ich traure’와 ‘weiss ich nicht’에서는 긴장감을 점차적으로 쌓아가기 위해 동일한 음을 연속적으로 노래하게끔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의도를 알고 연주해야 한다. 한껏 고조된 긴장감은 ‘immerdar durch Tränen sehe’에서 순차적 하행 선율을 통해 흐르는 눈물을 형상화하며 연주해야 한다.

<악보15> Verborgenheit(은둔) 1-17마디

A

1 *Mässig und sehr innig* 3 4  
 Lass, o Welt, o lass mich sein!

보통 빠르기로  
 사랑스런  
 마음을 담아

E<sub>b</sub>

Pedal point

5 6 7 8 9  
 locket nicht mit Liebesgaben lasst dies Herz al-lei-ne haben sei-ne Won

10 *rit tempo* 11 B-a 12 13  
 - ne, seine Pein! Was ich traure weiss ich nicht, es ist un-be-

*rit tempo mf*

PAC (cm) → 긴장감 ↑

14 15 16 17  
 kanntes Wehe; im-mer-dar durch Tränen se-he Ich der Son-ne

V<sub>7</sub> (반중지) IV<sub>6</sub> It<sub>6</sub> Fr<sub>6</sub> It<sub>6</sub> G<sub>b</sub>:갈으+팔

B부분의 악구b는 불안정한 시의 내용도 담아내면서 안정적인 A로 돌아왔을 때 대조되는 경과구적 역할로 쓰였다. 지시어 ‘nach und nach belebter und leidenschftlicher(점점 더 활기 있고 정열적으로)’로 분위기의 긴장감을 계속 가져가는 것을 도와준다. 이는 결국 26마디의 클라이막스 ‘Wonniglich(황홀한)’로 향하고 있는 것이며, 성악가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긴장을 쌓아가며 노래해야한다.

eb minor에서는 밝은 느낌을 낼 수 없기 때문에 26마디에서 원조인 Eb Major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28마디의 A부분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사 ‘Wonniglich(황홀한)’을 강조하기 위해 I 46을 통한 밝은 느낌, 불안정한 화성 그리고 곡에서 가장 높은 음을 활용하여 곡의 절정부에 극도의 긴장감을 연출했다.

<악보16> Verborgenheit(은둔) 20-27마디

**B - b** : 점점 활기있고 정열적으로  
*nach und nach belebter und leidenschftlicher*

Oft bin ich mir kaum be-wusst, Und die hel - le Freu - de zücket  
 durch die Schwere, so mich drücket Wonniglich in meiner Brust.

24 25 26 27

B<sup>b</sup>M: cm: e<sup>b</sup>m: E<sup>b</sup>M: 16/4

<악보17>과 같이 rit와 데크레센도를 통해 B부분을 정리하며 반중지를 기점으로 다시 처음과 같은 A부분으로 돌아온다. 이때, 악보의 생김새가 처음과 같지만 극도의 긴장감으로 화자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성악가는 보다 초연하고 담대해진 감정으로 정제하며 마무리 지어야 한다. Pedal point를 통해 극도의 흥분 상태를 해소하고 정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화자의 모습을 서정적인 분위기에 담았다.

<악보17> Verborgenheit(은둔) 28-30마디



<표9> Verborgenheit(은둔) 독일어 지시어 뜻

No.	제목	지시어	뜻
12	Verborgenheit 은둔	nach und nach belebter und leidenschaftlicher	점점 더 활기 있고 정열적으로

6-4) No.16 Elfenlied(요정의 노래)

Bei Nacht im Dorf der Wächter rief: „Elfe!“ Ein ganz kleines Elfchen im Walde schlief - Wohl um die Elfe!	한밤에 마을에서 야경꾼이 외치네: “엘페(11시)!” 숲에서 아주 작은 꼬마요정이 자고 있었네. - 11시쯤!
---	---

<p>Und meint, es rief ihm aus dem Tal Bei seinem Namen die Nachtigall, Oder Silpelit hätt ihm gerufen. Reibt sich der Elf die Augen aus, Begibt sich vor sein Schneckenhaus, Und ist als wie ein trunken Mann, Sein Schläflein war nicht voll getan, Und humpelt also tippe tapp Durchs Haselholz ins Tal hinab, Schlupft an der Mauer hin so dicht, Da sitzt der Glühwurm, Licht an Licht.</p> <p>„Was sind das helle Fensterlein? Da drin wird eine Hochzeit sein: Die Kleinen sitzen beim Mahle, Und treibens in dem Saale; Da guck ich wohl ein wenig 'nein!“ Pfui, stösst den Kopf an harten Stein! Elfe, gelt, du hast genug? Gukuk! Gukuk!</p>	<p>요정은 골짜기에서 밤 피꼬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아니면 질펠리트가 부르는 줄 알고, 눈을 비비며 일어나, 달팽이집에서 기어나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채, 비틀거리네, 비틀, 비틀 개암나무 숲을 지나, 두터운 담을 미끄러져 들어가 보니, 반딧불들이 반짝이며 앉 아 있었네.</p> <p>“창이 왜 저렇게 밝지? 결혼식이 있나봐: 난장이들이 잔치를 벌이며, 야단법석 일거야. 어디 조금만 들여다볼까!“ 아야!! 딱딱한 돌멩이에 머리를 찜찜! 엘페, 어때, 이제 됐어? 쿡쿡!</p>
---	--

Elfenlied(요정의 노래)는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의 16번째 수록된 곡으로, 뫼리케의 소설 <화가 놀텐(Maler Nolten, 1832)> 중 꼬마 요정들이 노래하는 시를 음악에 붙인 곡이다. 섬세한 지시어가 많고 곡의 주요인물인 요정을 상징하는 동기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가사와 음형에 연관성이 있는 표제음악이며, 반복되는 선율이 없이 ‘A - B - C(ab) - D - E’ 통절형식을 취한다. 독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Elf’와 소리가 비슷한 꽃과 빛의 요정의 이름 ‘Elfe’를 중의적으로 들리게끔 의도했다.

<표 10> Elfenlied(요정의 노래) 구성

형식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A	1-9	Gb Major Ab Major	Mässig 보통빠르기	2/4
B	10-21	Ab Major		
C	a			
	b	30-41		
D	42-53	Bb - g - Ab		
E	54-65	Ab Major		

1-4마디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보단 요정에 대해 거리감 있게 설명을 시작하는 전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썸머림표 ‘f’와 함께 지시어 ‘schwer und gewichtig’ 느리고 무겁게처럼 장중하게 시작한다.

짚은 전조가 일어나는데 Gb Major로 시작하여 4마디 가사 ‘Ein’부터 Ab Major로 전조된다. 이때, 앞과는 대조되는 썸머림 ‘pp’와 지시어 ‘leicht und schwebend(가볍고 떠다니듯)’을 기재했다. 이는 1-4마디는 야경꾼의 외침이라 무게를 두고, 5-9마디는 작은 요정이 잠자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무게를 뺀 것을 알 수 있다. 생동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연주자는 위 악상기호들을 지켜야 한다.

1-9마디까지 성악과 피아노 반주 사이에 몇 가지 병행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데, 1-4마디의 가사 ‘Bei Nacht im Dorf der Wächter rief: Elfe!’에서는 병행8도를, 4-7마디의 가사 ‘Ein ganz kleines Elfchen im Walde schlief wohl um die’에서는 악기 간에 일어나는 병행1도(Unison)와 피아노 반주 오른손에서 16분음표가 엇갈린 형태로 병행3도를, 다시 8-9마디의 가사 ‘Elfe’에서는 병행1도와 8도 모두를 볼 수 있다.

‘Elfe’가 등장할 때마다 8-9마디에서 요정을 상징하는 F음정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바그너의 ‘유도동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때 성악가는 도약되는 음정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기 위해 높은 ‘Ab’ 음정에서 확보했던 공간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아래 ‘Ab’ 음정을 연주한다.



<악보18> Elfenlied(요정의 노래) 1-4마디

1 **A** 병행8도

Bei Nacht im Dorf der Wäch-ter rief: „El - fe!“

느리고 무겁게

*f* schwer und gewichtig  
(heavy and ponderous)

Gb Major 불완전 정격동지

<악보19> Elfenlied(요정의 노래) 5-9마디

○ 병행1도(unison)

5 6 7 8 9

Ein ganz klei-nes Elf-chen im Wal-de schief... wohl um die El - fe!

leicht und schwebend  
(light and hovering)

16분음표를 엇갈리게 3도 병행

'요정'의 유도동기

ritard. sempre pp

B부분부터 본격적으로 가까이서 자세한 묘사가 시작된다. 요정을 상징하는 선율을 모방하여 요정이 등장하는 배경으로 두었다. Pedal point를 사용하여 음악이 정체되는 느낌을 주다가 30마디부터 베이스가 움직이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악보21>은 가사의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 비틀'과 같이 요정이 잠에 취해 깨어나는 과정과 '반짝이며 앉아있는 반딧불'을 형상화하였다.

<악보20> Elfenlied(요정의 노래) 10-13마디

**Mäßig** : 보통 빠르기  
(Moderately)

10 13

요정의 동기 선을 모방 Und meint, es

-> 엘프 설명 배경

Pedal point 8도병행(통일감)

<악보21> Elfenlied(요정의 노래) 22-29마디

**C - a**

22 23 24 25

Reibt sich der Elf die Augen aus, be-gibt sich vor sein Schnecken-

26 27 28 29

haus und ist als wie ein trun-ken Mann, sein Schläf-lein war nicht voll ge-

PPP 병행8도

Pedal point →

요정이 잠에서 덜 깨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가는 모습

pp

38마디부터 작은 요정의 조심스럽고 호기심 어린 대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데크레센도로 볼륨을 줄여 썸머림 ‘pp’ 아주 작게 대사를 시작한다. 또, 조성을 Ab - Bb - g - Ab로 다양하게 사용하여 요정의 대화를 더 섬세하게 묘사했다.

<악보22> Elfenlied(요정의 노래) 38-45마디

38 Licht. (관찰자 시점 끝) 39 40 41 „Was

42 **D** : 요정 시점 43 44 45  
sind das hel - le - Fen - ster - lein? Da drin wird ei - ne Hoch - zeit sein: die

Bb Major

50-51마디 밝은 창을 몰래 들여다보려 다가가는 요정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마디별로 섬세하게 지시어들을 제시하여 빠르게 변하는 상태와 심경의 변화를 연출했다.

54마디에서 사실상 음악이 끝나지만, E구간에서 종지를 유예시키며 긴장감을 유도하는 코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요정의 등장을 묘사하는 유도동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여기서 ‘Gukuk!’은 머리를 찡은 요정을 보고 새가 웃는 소리이다.

<악보23> Elfenlied(요정의 노래) 50-61마디

*bedeutend langsamer* 의미심장하고 느리게  
 Saa - le. Da guck ich wohl ein we - nig 'nein!  
*ritard. (zögernd)* 우물쭈물 주저하는  
*nicht eilen* 서두르지않게 *mäßig* 아주 부드러운 *sehr zart*  
 튀기듯 소리내기 Pflü, stößt den Kopf an har - ten Stein! El - fe.  
*schneller*  
 단호한 *entschlossen*  
 사실상 끝! → 종지의 유예 ①  
 gelt, du hast ge-nug? Gu - kuk! El - - fe,  
 → 종지의 유예 ②

<표11> Elfenlied(요정의 노래) 독일어 지시어 뜻

No.	제목	지시어	뜻
16	Elfenlied 요정의 노래	schwer und gewichtig	느리고 무겁게
		leicht und schwebend	가볍고 떠다니는 듯
		bedeutend langsamer	의미심장하고 느리게
		zögernd	우물쭈물 주저하는
		schneller	손가락으로 튀겨 소리내기
		entschlossen	단호한
		nicht eilen	서두르지 않게
sehr zart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 2.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의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

### 1) 음악적 배경

#### 1-1) 20세기 스페인 음악의 흐름

스페인 음악은 크게 5-15세기 중세시대, 16세기 르네상스시대, 17-18세기 바로크시대, 19-20세기 민족주의 시대로 나뉜다.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이베리아 반도이며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들이 발자취를 남겨 놓았다. 동방적인 것들과 서구적인 문화들의 다양한 문화의 영향 및 혼합은 스페인 음악으로 하여금 독창적인 모습을 갖도록 하였으며 최소한 이 점에서 타민족의 음악과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9)</sup>

바로크 시대부터 19세기까지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음악이 유럽 전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했으나 낭만주의 시대부터 고유한 개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각국의 고유한 민속적 요소가 높은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19세기 말, 스페인 안에서도 이러한 국민과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스페인 국민음악은 펠리페 페드렐(Felipe Pedrell)에 의해 시작한다. 그의 음악은 유럽 음악에 스페인 민족정서를 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후학의 귀감이 됐다. 이삭 알베니스(Isaac Albéniz), 엔리케 그라나도스(Enrique Granados) 그리고 마누엘 데 파야(Manuel de Falla)가 대표적인 후학이다. 이들은 스페인을 소재로 하여 각자의 작곡법을 통해 기존 유럽 음악과는 차별화 된 스페인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냈다.

#### 1-2) 스페인 민속음악(Folklore)

스페인어로 'Folk'는 '백성'을 뜻하고 'lore'는 '지혜'라는 뜻이니 결국 스페인 민속음악은 '백성들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9) 최선화 《스페인 현대음악 입문》, 음악춘추사, 2004, p.19, 56.

스페인 민속음악의 대표적인 특징들 중 리듬과 꾸밈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① 리듬

스페인 민요는 세기디야, 볼레로, 플라멩코 그리고 판당고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3박자 계통의 음악이 많다.

<표12> 스페인 민속음악의 리듬 ㉠㉡㉢

리듬 ㉠	3/4	
리듬 ㉡	3/4	
리듬 ㉢	헤미올라 3/4, 6/8	

<악보24> 플라멩코에서 사용된 복합박자(amalgama)<sup>11)</sup>



가장 대표적인 예로 파야(Manuel de Falla)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La Vida Breve)> 중 무곡, 비제(Georges Bizet)의 오페라<카르멘(Carmen)> 서곡, 사라사테(Pablo de Sarasate)의 <카르멘 환상곡(Carmen Fantasy op. 25)> 등이 있다.

<악보25> 사라사테(Pablo de Sarasate)의 <카르멘 환상곡(Carmen Fantasy op. 25)>



10) 최선화 《스페인 현대음악 입문》, 음악춘추사, 2004, p.56.

11) 최선화 《스페인 현대음악 입문》, 음악춘추사, 2004, p.70.

## ② 꾸밈음

특정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스페인 음악에서 꾸밈음은 음이 지속되지 않는 기타의 음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베이스 음을 동일하고 연속적으로 쳐서 빠른 음가로 꾸며주는 예시가 있다.

<악보26> 로드리고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의 제1곡 9-10마디



## 2)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의 생애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 1901-1999)는 스페인 작곡가로, 발렌시아의 도시 사군토(Sagunto)에서 태어나 만 3세가 되기도 전에 전염병에 감염되어 시력을 잃었다. 그의 아버지는 로드리고의 음악교육을 위해 자동 피아노와 축음기를 구입하여 음악 학습을 장려하였다.

5살 때 발렌시아로 이동하여 스페인 민속음악 작곡가 체바리(Eduardo López Chávarri)에게 첫 음악 교육을 받았다. 맹인학교에 입학하여 바이올린과 피아노 교육을 받았고 16세에 작곡을 시작하였다.

26세에 파리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de Musique)에 진학해 폴 뒤카(Paul Dukas, 1865-1935)에게 음악을 배웠다. 뒤카의 소개로 프야(Manuel de Falla)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로드리고의 음악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외에도 스페인 작곡가인 알베니스(Isaac Albéniz), 투리나(Joaquín Turina)에게도 음악을 배웠고 라벨(Maurice Ravel)과 프랑스 6인조의 오네게르(Arthur Honegger), 미요(Darius Milhaud) 등 여러 작곡가들과 친분을 쌓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터키 출신의 피아니스트 빅토리아 캄히(Victoria Kamhi)와 화족을 밝혔으며, 그녀는 그의 작품들을 더욱 성숙하고 풍부하게 해주었다.

1936년에 발발한 스페인 내전 중에도 카르타헤나 백작의 후원에 힘입어 로드리고는 파리에서 계속 작곡에 매진할 수 있었다. 1938년, 그의 대표곡이자 기타 곡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기타 협주곡 <아랑훼즈 협주곡(Aranjuezguqwnrhr, 1939)>을 완성하게 된다. 이 곡은 1940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초연 이후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대중적인 명성을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스페인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도 연주되는 등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1939년, 스페인 내전 종식 후 스페인으로 돌아와 로드리고는 음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작곡 뿐만 아니라 콘서트 피아니스트, 작가, 평론가, 방송인, 학자 및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했다.<sup>12)</sup> 1944년에 스페인 국립 라디오 방송국의 예술 감독, 1948년에 마드리드 대학 교수, 1950년에 산 페르난도 예술 아카데미의 의장으로 선출 등 활동했다. 1980년 5월, 로드리고는 후안 카를로스 국왕의 금장을 하사받고 같은 해 스페인 기타리스트 앙헬 로메로(Angel Romer)에게 헌정한 기타 독주곡 <이탈리카가 이름을 날린 옛날 옛적에(Un tiempo fue Itálica famosa)>로 호평을 받았다.

1991년 3월, 후안 카를로스 국왕은 노老 작곡가에게 아랑후에스 정원 후작 작위를 하사했다. 그가 나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영예였다.<sup>13)</sup>

### 3)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의 음악적 특징

로드리고는 기악, 관현악곡을 제외하고도 100여곡이 넘는 가곡을 썼다. 그의 작곡기법은 주로 프랑스의 음악 특히 폴 뒤카와 스페인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작품은 화성, 선율, 리듬 등으로 보아 대부분 17-18세기 유럽 음악의 전통을 토대로 작곡한 신고전주의 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스페인 민속음악 형식을 적극 활용한 민족주의 음악이기도 하다.

신고전주의 작곡가로서 로드리고는 현대시 뿐만 아니라 고대의 전설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예술 가곡 형식의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다. 반주는

12) 그레이엄 웨이드 《로드리고, 그 삶과 음악》, Phono(포노), 2014, p.10

13) 그레이엄 웨이드 《로드리고, 그 삶과 음악》, Phono(포노), 2014, p.85



피아노나 기타, 오케스트라, 목관악기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가수의 목소리에 맞는 선율을 만들었고 스페인 민속리듬과 춤곡 등에서 민속적인 요소를 더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의 가곡은 정제된 감각의 운율과 협화음과 불협화음과 함께 서정적인 분위기와 순수함이 드러난다. 14)

반주는 많은 테크닉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스티나토를 즐겨 사용하여 곡에 통일감을 주었고 선율은 매우 서정적이다.15)

그의 대표작으로 피아노 작품<멀리서 들려오는 사라방드(Zarabanda lejana, 1926)>, <새벽 수탉전주곡(Preludio al gallo mañanero, 1926)>, 콩쿨 수상작인 협주곡<푸른 백합꽃을 위하여(Per la flor del Lliri Blau, 1934)>, 기타협주곡<아랑훼즈 협주곡(Aranjuezguqwnrhr, 1939)>, 기타독주곡<이탈리카가 이름을 날린 옛날 옛적에(Un tiempo fue Itálica famosa)>, 연가곡<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 1947)> 그리고 소피아 여왕(Sophía M. V. Frederík)의 요청으로 그녀에게 헌정된 <카스티야의 서정시(Líricas Castellanas, 1980)> 등이 있다.

#### 4)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의 작품 경향

1947년, 로드리고의 가곡집 중 가장 유명한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은 4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피아노와 성악을 위한 곡으로 작곡되었으나, 그 다음 해에 오케스트라와 성악을 위한 곡으로 편곡되었다. 작품에 수록된 4개의 가곡 모두 사랑에 관한 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후안 바스케즈 (Juan Vasquez, 1510-1560)의 시집 <Recopilacion de sonetos y sonatos y villancicos a quatro y a cinco(네 가지, 다섯 가지 목소리를 위한 소네트와 민요집, 1560)>에서 발췌됐다. 이 시집은 바스케즈가 자신의 시와 당시 대중에게 인기가 많았던 작자 미상의 시인들의 시까지 포함하여 출판한 것이다.

14) Tomas Marco(1980). "Joaquin Rodrigo."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 Stanley Sadie(1980), Vol. 6, p.92-93

15) Kimball Carol, 채은희 역,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서울: 형성, 2004, p.330.

<Cuatro madrigales Amatorios(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은 1950대와 1960년대 사이 활동 했던 4명의 스페인 성악가에게 헌정되었다. 제 1곡은 세오아네(Martines Seoane), 제 2곡은 랑가(Cecilia Langa), 제 3곡은 모랄레스(Angeles Morales), 제 4곡은 듀리아스(Perez Durias)에게 바쳐졌다.

피아노 반주부에 다양한 스페인 춤곡 리듬과 기타 주법을 연상시키는 음형들을 사용하여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성을 잘 나타냈다. 동시에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클래식 음악에서 나타났던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써 스페인의 전통적인 형식과 현대음악이 적절히 융합되었다.

<표13>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

악곡	제목	빠르기	박자	형식	조성
1	Con quéla lavare? (무엇으로 씻을까?)	Andante molto tranquillo (조금 느리고 아주 고요하게) ♩ = 52	4/4 3/4 4/4	유절형식 A-A	f Aeolian
2	Vos me matásteis (내 생명 빼앗은 당신)	Andantino (안단테 보다 조금 빠르게) ♩ = 66	4/4	A(aa'a) -B(ba)	a Aeolian
3	De dónde venís, amore? (내 사랑 어디에서 오나)	Allegro grazioso (우아하고 경쾌한 빠르기) ♩ = 108	2/4 3/4	통절형식 a-b-c-d	F Major
4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Allegro (경쾌한 빠르기) ♩ = 112	2/4	론도형식 A(aa')-A'(aa") -B(bb')-A'(aa") -C(cc') -A"(a'a'a")	A-E -f#-A

5)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

(Cuatro madrigales Amatorios)>에 대한 해설

5-1) 제 1곡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p>¿Con qué la lavaré la tez la mi cara? que vivo mal penada.</p> <p>Lávanse las casadas con agua de limones, lavóme yo cuitada con penas y dolores.</p>	<p>무엇으로 씻을까 나의 아름다운 얼굴을? 고통스런 나의 인생이여.</p> <p>처녀들은 신선한 레몬수로 그들 스스로를 씻는다. 나는 슬픔으로 얼룩진 눈물로 괴롭고 고통스런 마음을 씻네.</p>
--	---

제 1곡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는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 지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처벌받아 씻을지 비참해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절형식 곡이다. 16세기 작자 미상의 시를 가사로 사용하였으며 f Aeolian(에올리안)의 총 24마디 구성이다. 빠르기는 Andante molto tranquillo로 ‘조금 느리고 아주 고요하게’라는 뜻이다.

<표14>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구성

형식		마디	구성	빠르기	박자
A	a	1-4	f Aeolian	Andante molto tranquillo (조금 느리고 아주 고요하게) ♩ = 52	4/4 - 3/4
	b	5-12			
A	a	13-15			
	b	16-24			

전주부에서 작품을 함축적으로 제시했으며, 종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통일성을 준다. 피아노 반주 오른손 멜로디에 이 곡의 중심인 f음을 위주로 f Aeolian 선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27>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1마디

**Andante molto tranquillo. M. J- 52.**

<악보28> f Aeolian(자연단음계) 선법

2-3마디 왼손 반주부가 5도 병행을 이루며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2마디 성악 성부 'qué la lavaré'에 순차적으로 같은 음을 연속적으로 연주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페인 음악의 특성이다. 3마디에서 3/4박자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3-4마디에서 f Aeolian이 나타난다. 4마디에서 PC(변격중지)를 사용함으로써 선행악구를 마무리 시켜준다.

<악보29>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2-4마디

동음연타      *cresc.*      f Aeolian

2      3      4

¿Con qué la la-va-ré      la tez      de la mi ca-ra?  
With what then may I bathe      the bloom      up-on my beau-ty?

5도병행      i<sub>6</sub>      V      VII      IV<sub>6</sub>      ↳PC(변격중지)

5마디 피아노 반주에 등장하는 아르페지오 음형은 새로운 프레이징의 시작을 알리는 효과를 낸다. ‘¿Con que la lavare?’ 가사를 강조하기 위해 도약(1. 도-미-미-도시도-라), (2. 미-파-라-솔-미-도)의 사용과 성악의 주제(subject) 선율이 다 끝나기도 전에 반주선율이 모방하여 그대로 중첩되는 ‘Stretto(근접모방)’를 사용해서 음악의 긴장도를 극적으로 높였다. 1마디의 A부분의 악구a의 썸여림표 ‘p(여리게)’와 대조되는 5마디의 A부분 악구b ‘mf(조금 세게)’가 등장하여 긴장감을 더해주며, 6마디는 곡의 최고음이 등장함과 동시에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연달아 나오며 클라이맥스를 더욱 긴장감 있게 해준다. 이때 성악가는 호흡을 긴장감 있게 조절하여 썸여림과 악상 기호를 지켜야하며 반주와 중첩되는 선율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음정을 연주해야한다. 클라이맥스가 지나서는 다시 썸여림표가 ‘mp(조금 여리게)’로 돌아오며 데크레센도로 조용하게 마무리된다.

<악보30>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5-8마디

Stretto: 음악의 긴장도 ↑

mf ¿Con qué la la - va - ré? ¿Con qué la la - va - ré? que vi - vo mal pe - na da.  
 With what then may I bathe? With what then may I bathe? Who life has made so twist ed?

아르페지오 음형 : 새로운 프레이징의 시작을 알림

간주부에서는 이 곡의 특성들을 모두 집어넣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동음연타’, ‘꾸밈음’ 그리고 ‘5도병행’이 드러난다. 성악부의 휴식을 통해 주제의 재등장을 준비한다. 11-12마디에 전주부 1마디에서 제시했던 주제 음형을 반복했다.

<악보31>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9-12마디

간주부) 1. 동음연타 2. 꾸밈음 3. 5도병행

13마디부터 앞서 등장했던 A부분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때 연주자는 1절의 가사보다 2절에서 화자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 깊어지는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해주어야 한다.

<악보32>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13-17마디

마지막 가사인 ‘con penas y dolores(괴롭고 고통스런 마음)’을 반복하며 화자의 괴로움을 읊조리듯 하는데, 연주자는 ‘rit.’, ‘decrescendo’, ‘pp’를 모두 적용하여 음악을 완전히 마무리 하는 느낌을 연출해야한다. 이때 작곡가는 종지음에 약박을 두는 효과로 종지를 모호하게 했다. 곡 전반적으로는 자연단음계를 사용했지만 마지막에 종지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화성단음계를 사용하였다. 피아노 반주에 vii화성의 아르페지오와 페달을 함께 사용하여 종지를 강조하고 있다.

<악보33>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 22-24마디

5-2) Vos me matá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p>Vos me matásteis, niña en cabello, vos me habés muerto.</p>	<p>나의 사랑을 당신은 외면했네. 긴 머리카락의 소녀여, 사랑으로 나를 죽게 하네.</p>
<p>Riberas de un río, vímoza virgen niña en cabello.</p>	<p>어느 강가에서 나는 젊은 한 처녀를 보았네. 긴 머리카락의 소녀여.</p>

제 2곡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은 작자 미상의 16세기 시를 가사로 사용한 순환 2부형식의 곡이다. 강가에서 만난 아름다운 소녀를 떠올리며 사랑의 고통을 걱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사 ‘사랑으로 나를 죽게 하네.’와 같은 내용은 스페인 시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이 작품은 a Aeolian 선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위법적 사용이 나타난다. 곡에서 협화음정인 3, 6도 병행이 쓰이고, 악기 간에 병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선율과 리듬의 모방과 반복 그리고 Pedal point의 사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전주의와 현대적 작법이 함께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장식음의 사용 등을 통하여 스페인의 민속음악 특징 또한 잘 보여준다.

<표15>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구성

형식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A	a	1-6	Andantino (안단테 보다 조금 빠르게) ♩ = 66	4/4
	a'	7-11		
	a	12-15		
B	b	16-26		
	a	27-30		

a Aeolian(자연단음계) 선법을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 전주 1마디는 작품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주제는 곡의 중간과 종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악보34>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1마디

**Andantino. M. ♩ = 66.**

<악보35>의 2마디와 5마디에 협화음정인 5도병행과 불완전협화음인 3도병행이 함께 진행되는데, 이 곡은 병행이 성악부와 피아노 반주부인 악기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이때 성악가는 피아노와의 병행이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정확한 음정을 연주한다.



2마디의 성악 성부 음형이 Inversion 되어 4마디에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3-5마디에 a Aeolian의 7음에 반음(솔#)을 올려줌으로써 종지감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화성단음계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4-5마디 가사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나의 사랑을 당신은 외면했네.'가 반복되고 있지만 마디마다 셈여림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조로움을 막고 극적인 효과를 주는 장치이며, 연주자는 반복되는 가사를 4마디에서는 'mf'로, 5마디에서는 'pp'로 연주하여 대조를 주어야 한다. 4-5마디 피아노 반주 오른손 선율은 한 옥타브를 차이에 두고 2번 반복해서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35>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2-5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line. The vocal line has lyrics: "Vos me ma-tá-teis ni-ña en ca-be-llo, vos meha-bés muer-to vos meha-bés muer-to".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right-hand line with a circled note in measure 4 and a circled note in measure 5, with arrows pointing to the vocal line's notes in measures 2 and 4, indicating an inversion. A legend at the bottom explains: "\*2마디의 ○: 약기간 병행 5도" (parallel 5th intervals in measures 2), "음형 Inversion" (melodic inversion), and "\*5마디의 ○: 약기간의 병행 3도" (parallel 3rd intervals in measure 5). Other annotations include "a minor", "7음에 반음을 올려줌", "mf", "pp", "cresc.", and "rit.".

8마디에서는 e Aeolian로 부분적으로 전조가 일어났고 e Aeolian의 종지에서 e minor의 7음 '레'에 '#'을 붙였다. 이는 전통적인 화성단음계를 통해 종지감을 높여주고 동시에 곡 전체적인 통일감 또한 나타낸다. 9마디에서 성악과 피아노 사이에 5도병행의 전위를 통해 4도 병행을 활용하였다. 성악가는 약기간에 병행되는 음정이 또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확한 음정을 연주해야한다. 9-11마디는 12마디에서 다시 악구a로 돌아가기 위한 경과구 역할을 한다.

<악보36>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7-9마디

변격중지로 A구간을 마치고 B부분의 악구b가 시작된다. B-b에서는 1마디씩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호흡이 짧아지면서 점진적으로 긴장도를 높이는 효과를 준다. 16-19마디에서 연주자는 20마디의 클라이맥스까지 긴장감을 쌓아가야 한다. 썸머림 'p'로 시작하여 'cresc.'를 통해 점차 볼륨을 키웠다가 20마디 최고음정에 도달 후에는 다시 'pp'로 'decresc.'하여 돌아와 정리해준다.

<악보37>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16-21마디

23-25마디에서는 전반적으로 반주 베이스 부분에 원조 a minor의 딸림화음 음정 '미솔시', 특히 '미'를 여러 번 깔아줌으로서 처음에 나왔던 주제가 다시 등장할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악구a를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악보38>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23-25마디

27-30마디는 곡의 맨 앞과 아주 동일하게 쓰여 있어 통일감을 주며, 연주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곡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연주해야 한다. 이는 소녀에게 외면 받아 고통스러운 사랑을 느끼는 화자의 마음을 다시금 강조하며 마무리 된다. 27마디에서 피아노 반주 오른손에 1번, 피아노와 성악 사이에 2번 불협화음정인 6도 병행을 사용하였다. 제 2곡에서는 종지에서 변격종지를 완전정격종지처럼 적극 사용하였고, 이는 끝나는 느낌이 약하게 들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악보39>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 27-30마디

5-3) De dónde vení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오나?)

¿De dónde venís, amore? Bien séyo de dónde,	사랑은 어디에서 왔나요? 난 잘 알아요. 어디에서 왔는지.
¿De dónde venís, amigo? Fuere yo testigo,	친구여, 그댄 어디에서 왔나요? 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AH, bien séyo de dónde, Ah ah ah de dónde.	아- 난 잘 알아요. 어디에서 왔는지.

제 3곡 ¿De donde vení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통절형식의 곡이다. 연가곡의 4곡 중 가장 넓은 음역을 사용하고 있는 이 작품은 성악과 피아노 간에 부딪히는 소리인 불협화음이 자주 사용되었고, 2/4-3/4박자 사이 잦은 변박과 변주 등을 통해 관중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16> ¿De donde vení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구성

형식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A	1-10	F Major	Allegro	2/4 - 3/4
B	11-24		grazioso 우아하고	
C	25-38		경쾌한 빠르기	
D	39-48		(♩ = 108)	

피아노 전주부에서 곡의 진행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3-4마디에서 이 곡의 가장 주된 주제(Subject) 선율을 제시하고 있다. 1마디 반주 오른손에서 ‘도#’와 ‘레’, ‘도#’과 왼손 베이스 ‘도’가 불협화음이다. 오른손에서 그 다음 등장한 ‘시’는 ‘도’와 단2도를 이루고 있다. 최상성부에서는 ‘레’가 ‘도’를 앞꾸밈음으로 꾸며주고 있다. 전주 3, 4마디에서 완전 8도 병행(unison)가 등장하여 1,2마디와 대조적이다.

<악보40> ¿De donde veni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1-4마디

**Allegro grazioso. M. J = 108**

1 2 3 4

앞꾸밈음

주제 (Subject) 선율

완전8도병행

부딪히는 소리 불협화음 협화음

악보의 5-6마디에서 주어진 박자에 해당하지 않는 박에서 페달 포인트(Pedal point)가 나타나고 있다. 7마디에서 페달 포인트가 깨지는 순간에 스타카토의 등장으로 다른 프레이징과 보다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성악가는 앞에 제시한 부분과의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 절도 있는 호흡으로 음정을 끊어 스타카토를 연주해야 한다.

<악보41> ¿De donde veni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5-8마디

스타카토 →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5 6 7 8

don - de ve - nis, a - mo - re? Bien sé yo de don - de,  
when have you come be - lov - ed? I know full well where you've been,

*p*

○ : Pedal point

스타카토

17-20마디는 악기간의 8도 병행(unison)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행과 반박씩 밀려 병행하는 방법으로 단조롭지 않게 구성했다. 이때 성악가는 정확한 타이밍에 밀리지 않도록 스타카토를 연주하여 피아노 반주와 정박, 엇박에 유니즌을 배치해둔 작곡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17-20마디에 가사‘Bien séyo de dóde’의 주제음형은 유지하되 청중에게 ‘de dóde’가사를 듣게 하기 위해 8도 병행을 잠시 뺐다가 다시 사용했다.

<악보42> ¿De donde veni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17-24마디

17 18 19 20

Bien sé yo de donde venis, amore? I know full well where you have been, bien se yo de donde venis, amore? know full well where you have been.

병행8도

21 22 23 24

bien sé yo de donde venis, amore? know full well where you have been, bien se yo de donde venis, amore? know full well where you have been.

음형은 유지하되 8도병행 끝

다시 8도병행

29-30마디에서 주제 선율을 활용하여 박자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피했다. 33-34마디에 새로운 선율이 등장하며 잠시 환기해주었다가 35-36마디에서 1-4마디 전주부에서의 종지 악구가 등장하며 통일감을 이루면서 마무리 된다.

<악보43> ¿De donde veni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29-36마디

36마디에서 사실상 노래가 끝났지만 39마디부터 Trill(트릴)을 이용하여 종지를 연장한다. 멜리스마적인 트릴의 사용은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곡 중 성악가에게 높은 난이도의 멜리즈마를 요구하는 구간으로, 정확한 음정과 박자 그리고 명확한 스타카토를 연주해야 하며 2마디씩 제시되어 있는 셈여림표 'pp-f'를 지켜 노래해야 한다.

<악보44> ¿De donde veni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39-42마디

39마디의 연장선으로 43-48마디는 점차적으로 가장 높은 음고로 향해 가며 셈여림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주자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대비를 주며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악보45> ¿De donde veni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 43-48마디

The musical score shows measures 43 to 48. The vocal line begins with a mezzo-forte (mf) dynamic and includes the lyrics: "bien sé yo de don - de, I know where you've come from, bien sé yo de don - de, I know where you've been to, Ah ah ah de don - de. just where you've been." The piano accompaniment starts with a forte (f) dynamic. The score includes performance markings such as "rit..." and "ff".

#### 5-4)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플라 나무 옆에서)

De los álamos vengo, madre, de ver cóo los menea el aire.	어머니, 바람에 흔들리는 포플라를 보았어요.
De los álamos de Sevilla. de ver a mi linda amiga.	세비야의 포플라 밑에서 아리따운 나의 님을 보았어요.

제 4곡 De los álamos vengo, madre(포플라 나무 옆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온 것을 어머니에게 포플라 나무에 다녀왔다’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연가곡 중 가장 빠른 Allegro, ♩=112의 ‘경쾌한 빠르기’이며 총 109마디의 A-A’-B-A’-C-A” 론도형식 곡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2/4박자를 유지하며 같은 리듬, 화성, 선율을 사용하는 단순한 곡이지만 전조(A-E-f#-A)를 통해 곡의 변화를 주었다.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으로 3가지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앞의 제 1, 2, 3번곡들과는 다르게 A Major로 조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피아노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론도형식에 걸맞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반주부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타음형과 트레몰로 (tremolo)음형이 있다. 간주의 반주부에서 짧은 음가의 동음연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속되는 음이 짧아 연속해서 베이스 음정을 쳐야만 하는 기타음형과 유사하여 마치 스페인 전통 음악을 연상케 한다. 성악부의 등장 시에는 반주부가 트레몰로 음형로 변하는데 이것은 성악부를 돋보이게 도와주면서도 앞서 보여주었던 기타음형과 어우러진다.

<표17>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플라 나무 옆에서) 구성

형식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A	a	1-27	A Major	Allegro 경쾌한 빠르기 (♩=112)	2/4
	a'				
A'	a	28-44			
	a''				
B	b	45-60			
	b'				
A'	a	61-71			
	a''				
C	c	72-86			
	c'				
A''	a'	87-109			
	a'				
	a''				

이 작품은 피아노 반주의 비중이 많은 곡으로 전주가 15마디 동안 연주되며, 명확한 A Major 조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음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 쳐서 기타음형이 연상된다. 이러한 형태의 반주가 곡 전체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듣는 이들에게 스페인의 전통 민속음악을 떠올리게 한다. 2-3마디에서 불협화음정의 7도 병행이 나타나고 있다.

<악보46>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1-4마디

**Allegro M. J = 112.**

1 2 A Maior 3 4 기타음형

불협화음정인 7도 병행

앞의 전주부와 달리 성악 성부가 등장하기 위해 피아노 반주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짧고 동일한 음가를 연속해서 연주하는 기타음형과 어우러지는 Tremolo(트레몰로) 음형을 사용하고 있다. 3화음을 사용함으로써 성악 성부가 돋보일 수 있게끔 받쳐주는 효과가 있다. 이때 성악가는 리드미컬하게 진행되는 반주부 위에서 프레이징을 유지하며 선율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legato하여 연주해야 한다.

<악보47>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15-18마디

15 16 17 18

Tremolo(트레몰로) 음형 *f* De los á — la — mos ven — go,  
I have been by the pop — lars,

고전주의 3화음 용법

돋보이게 해주어야 할 성악 성부가 사라지는 27마디부터는 간주의 시작으로 전주와 같은 형태인 기타 음형이 다시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반주를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악보48>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25-29마디

성악 성부의 꾸밈음은 40마디에 처음 등장하여 종지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40-41마디 ‘미’ 음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연장해주는 다양한 음가의 트릴(Trill) 형태 사용했으며, 5잇단음표를 이용해 음을 장식해주는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성악의 멜리즈마(Melisma)는 스페인 민속적 색채를 짙게 연상시키며 성악가에게 난이도 있는 기술을 요구한다. 4마디 이상의 긴 프레이징을 유지하며 도약되는 음정을 연주해야 하는데, 이때 프레이징 중 가장 높은 음정인 ‘A’위치에 미리 가서 준비하여 나머지 음정까지 연주해야만 도약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음고의 격차를 보완할 수 있다. 나아가 도약과 꾸밈음을 해결하기 위해 호흡이 굳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숨을 균일하게 뱉어야만 한다.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알파벳 ‘h’의 소리와 비슷하게 호흡을 뱉어 꾸밈음 음정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악보49>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40-44마디

<악보50>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85마디

<악보51>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105-109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2/4박자를 유지하며 같은 리듬, 화성, 선율을 사용하는 단순한 곡이지만 전조(A-E-f#-A)를 통해 곡의 변화를 주었다. 곡의 전반적인 조성은 A Major이지만 45마디 B부분의 악구b에서 E Major로, 75마디 C부분의 악구c에서 f# minor로 전조가 일어난다.

<악보52>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44-47마디

B - b

44 45 46 47

*mf* De los álamos ven go,  
I have been by the pop lars,

E Major

<악보53>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폴라 나무 옆에서) 75-78마디

C - c

75 76 77 78

*p* De los álamos de Se vi  
By the pop lar trees of Se vi

f# minor

### Ⅲ. 결론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위한 졸업연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후고 볼프(Hugo Wolf)의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 1888)> 중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Verborgenheit(은둔), Elfenlied(요정의 노래)’와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의 <Cuatro madrigales Amatorios(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 1947)>에 대해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작품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작곡가 후고 볼프(Hugo Wolf, 1860-1903)와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 1904-1999)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을 함께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은 뫼리케의 시에 영감을 받아 음악을 붙여 만든 가곡모음집으로 대략 8개월에 걸쳐 완성되었다. 볼프가 선택한 뫼리케의 시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취급하는데 해와 바람과 같은 자연의 소재, 신화적인 초자연의 소재, 유머러스한 가사 그리고 당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선정적인 사랑부터 동화적이고 서정적인 사랑의 시들까지 담고 있다. 볼프의 <뫼리케 가곡집(Mörike Lieder)> 중 네 개의 가곡(No.2, No.9, No.12, No.16)에서 크게 3가지 표제 음악적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바그너의 유도동기(Leitmotiv)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악구를 사용하였다. 문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볼프는 성악뿐만 아니라 피아노 반주와 시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때문에 시의 주요인물이나 소재를 잘 묘사, 암시할 수 있도록 피아노 반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Elfenlied(요정의 노래)’에서 노래의 주요인물인 요정이 등장할 때마다 동일한 악구를 사용하여 요정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려주었다. 두 번째, 세밀하고 정확한 연주할 수 있도록 수많은 지시어들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성악가와 피아노 반주자는 반드시 지시어의 뜻을 알고서 섬세한 그의 의도를 반영해야만 제대로 연주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소재에 맞는 분위기 또는 특정한 감정을 연출을 했다. 예를 들어, ‘Der Knabe und das Immlein(소년과 꿀벌)’에서 해설이 있는 부분은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게끔 단조를 사용하였고 소년과 꿀벌의 대화가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밝고 사

랑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장조로 전조된 것을 알 수 있다.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은 작자미상의 시에 붙인 4개의 사랑 노래로 구성된다. 4개의 곡은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제 1곡 ¿Con que la lavare?(무엇으로 씻을까?)는 금지된 사랑의 고통, 제 2곡 Vos me matasteis(내 생명 빼앗은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제 3곡 ¿De donde venis, amore?(내 사랑, 어디에서 왔니?)은 사랑의 고백 그리고 제 4곡 Del Ios Alamos vengo, Madre(포플라 나무 옆에서)은 사랑의 설렘을 담고 있다. 이 4개의 곡을 분석하면서 네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전주부에 작품을 함축적으로 제시했으며, 종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통일성을 기한다. 두 번째, 스페인 민속음악적 특징으로 동일한 음을 연속적으로 연주하여 스페인 민속악기 기타 음형을 표현했다. 세 번째, 스페인 민속음악의 리듬적 특징으로 다양한 꾸밈음을 이용했다. 예를 들어, 트릴(Trill)을 이용하여 한 음을 강조하며 연장하거나 트레몰로(Tremolo)를 이용하여 명확한 목적은 없지만 장식해주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 공통점은 병행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로드리고를 가까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그에게서 언제나 장애와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영웅의 이미지를 보았다고 한다. 동시에 그는 다른 이들에 대한 너그러운 연민의 정을 잃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의 인생은 거대한 고난의 연속이었다. 거의 100년에 달하는 그의 기나긴 생애의 전반부는 장애, 가난, 퇴짜, 내전과 세계대전의 암운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던 시절, 사실상의 망명, 불확실한 미래와 절망으로 점철된 세월이었다. 로드리고가 정상에 오른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난했다. 그럼에도 그는 엄청난 용기와 천재의 영감에 힘입어 모든 장애물을 영웅적으로 극복했고, 마침내 스스로 예술적 운명을 이루어냈으며, 20세기 음악의 광대한 지평에 다채롭고도 깊게 기여했다.<sup>16)</sup>

이 밖에도 <뫼리케 가곡집(Mörrike Lieder, 1888)> 중 Der Knabe und das Immlin(소년과 꿀벌), Nimmersatte Liebe(만족 없는 사랑), Verborgenheit(은둔), Elfenlied(요정의 노래)와 <Cuatro madrigales

16) 그레이엄 웨이드 《로드리고, 그 삶과 음악》, Phono(포노), 2014, p.10, 15.

Amatorios(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 1947)>의 연구로 인해 볼프와 로드리고가 표제 음악적 성향을 띠는 작법을 사용하였다는 공통점 또한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뉘리케 가곡집(Mörrike Lieder)>과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Cuatro madrigales Amatorios)>에 관심을 가지고 연주하고자 하는 다른 성악가 그리고 반주자들에게 작품을 이해하고 있어서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강만희, 《간추린 19세기 낭만음악사》, 예광, 2005.

그레이엄 웨이드 《로드리고, 그 삶과 음악》, Phono(포노), 2014.

최선화 《스페인 현대음악 입문》, 음악춘추사, 2004.

피종호, 《아름다운 독일시와 가곡》, 자작나무, 1999.

홍세원, 《낭만과 음악》,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Donald Jay Grout,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이앤비플러스, 2009.

Carol Kimball. 채은희 역,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하권, 형설, 2004.

Eric Sam, 《The Songs of Hugo Wolf》, 1993.

### 학위논문

김지연, “Joaquin Rodrigo의 연가곡 ‘Cuatro Madrigales Amatorios’에 대한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0.

김지연, “Joaquín Rodrigo의 「Cuatro Madrigales Amatorios」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6.

박소정, “‘사랑’을 주제로 한 Mörike 시에 붙인 H. Wolf의 4개의 가곡 분석과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7.

박예진, “Joaquín Rodrigo의 Cuatro Madrigales Amatorios에 대한 분석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8.

손유나, “호아킨 로드리고의 연가곡 「Cuatro Madrigales Amatorios」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의 음악적 분석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8

이지영, “볼프의 《뫼리케 가곡집》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20

정필희, “J. Rodrigo의 「Cuatro Madrigales Amatorios」에 나타난 Madrigales의 특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4.

최향, “Mörike 시에 의한 Hugo Wolf의 가곡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4

팽아결, “Hugo Wolf의 「Mörike」에 관한 연구 : 《Der Knabe und das Immllein》, 《Er ist' s》, 《Das verlassene Mägdlein》, 《Elfenlied》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9.

## 보도자료 및 기타

Tomas Marco(1980). "Joaquin Rodrigo."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 Stanley Sadie(1980), Vol. 6

## Abstract

A study of four songs(No. 2,  
No. 9, No. 12, No.16) of  
<Mörike Lieder> by H.Wolf and  
<Cuatro madrigales Amatorios>  
by J.Rodrigo

Yoonsoo Wi

Depart of Vocal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study on 'No.2 Der Knabe und das Immlein', 'No. 9 Nimmersatte Liebe', 'No. 12 "Verborgenheit', 'No. 16 "Elfenlied' of <Mörike Lieder> by H.Wolf and <Cuatro madrigales Amatorios> by J.Rodrigo among my master's degree graduation performance programs.

Hugo Wolf is an Austrian composer. Wolf, who was interested in

literature, put great significance on expressing lyrics by attaching music to poetry, and as a follower of Wagner, he collected his creative principle of "integration of poetry and music" and did not give an edge to songs and lyrics. Completed in 1888, "Mörike's Song Collection" is a collection of 53 poems made by the poet Eduard Mörike (1804-1875) with music. This work is of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completed work of Wolf's full-fledged songwriting activities and contains the most well-known songs to the public among his works. The poet Mörike wrote a poem with various themes, including the mysteries of nature, myths, religious aspects, and folk emotions, as well as what he wrote based on his love experience during his wandering days. Therefore, the theme of the songbook can be classified into "love," "religion," "nature," "supernatural," and "sulja," with the second and ninth songs to be studied in the text being "love," the 12th song being "religion," and the 16th song being "supernaturalism." All songs 2, 9, 12, and 16 contain Wolf's uniqu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it can be seen that storytelling, semitone, discordant notes and precursors were actively used through to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poem, express the main material, and above all, piano accompaniment was effectively used. Wolf's meticulous artistry as well as the intriguing and diverse stories of <Mörike's Songbook> are indeed fascinating.

Rodrigo is Spain's leading nationalist composer and neoclassical composer. Due to the influence of studying abroad in his early age, European musical elements and folk elements of his home country were combined to harbor his own composition style. In this aspect, before studying his music,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e flow of Spanish music in the 20th centu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panish folk music. Rodrigo's music, which combines Spanish folk music colors with traditional European musical elements were attractive enough to be chosen. Composed in 1947, "Madrigal of Four Loves" is

Rodrigo's representative work and consists of four songs under the theme of "Love." It was initially composed for piano accompaniment and vocal music, but was arranged in 1948 as an orchestra accompaniment and vocal music. It can be seen that his musical characteristics, the active use of harmony and discordance, and decorations based on Spanish folk music, often appear in vocal chords and piano accompaniments. The lyrics are extracted from the poetry collection "Recopilacion de sonetos y sonatos villancicos a quatro y a cinco (sonnet and folk song collection for four and five voices, 1560), which included not only his poems but also works of unknown authors who were popular at the time. The four songs talk about different "love" themes, which contain three-dimensional and diverse emotions such as the pain and longing of love, sadness or excitement and joy.

Therefore, after examining books and literature related to Hugo Wolf's "Mörike's Songbook" and Joaquin Rodrigo's "Madrigal of Four Love," this paper also aims to study the interpretation of lyrics, analysis of music,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mposers and poets.

keywords : Hugo Wolf, Eduard Mörike, Joaquín Rodrigo, Romantic Art Song, Spanish folklore, Nationalism.

Student Number : 2016 - 21875